



# 백승의 진리를 새겨주는 흥기대전투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이 꽃피는 내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주체 영원한 태양인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그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이며 만년초석이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흥기하의 수필속에서 원수적멸의 총성이 울려 퍼진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세월이 흘렀다.

백두산청년장군 김일성동지께서 령활한 군사적지략과 평군술로 통쾌하게 울리신 그날의 반일수군의 총성이 오늘날도 천만의 심장에 새겨주는 고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흥기대전투는 흥기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은 흥기대전투를 통해 쓴맛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뒤꿈치 밑을 아무리 쏘아대도 보아야 차례질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대로보라>의 종말과 같은 비참한 결과만 맛보게 된다는것과 조선인민혁명군을 라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쓰디쓴 교훈이었습니다.》

흥기대전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시기를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절충한 명장의 명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 승리적으로 결속되던 나날들이 어찌없는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다.

또다시 조선인민혁명군의 금강습습하는 전술에 속아 순식간에 대마복자를 기습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조에 트벌사령부》 산하의 화룡현 《경찰소트벌대》 대장인 우나미와 마에다를 비롯한 《특수부대》원들은 목이 울라 날뛰었다. 그중에서도 마에다는 자기네가 맡아 유격대를 전멸시켰다고 헐서를 쓴 다음 《트벌대》출정식을 벌리고 병사들에게 죽을 작모를 하여야 한다면서 유서까지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악명높은 트벌대원들이 반드시 피로써 물고

늘어지리라는것을 예견하시고 소부대성원들과 로획물자들을 지고 유격대를 따라오던 사람들을 대마복자로 되돌려보내시면서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시였다. 적들은 그들의 발자취에 또다시 속아 모처럼 잡았던 유격대를 놓쳐버렸다고 통탄하다가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고 으르렁거리며 매일같이 산속을 헤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걸질기게 뒤쫓아오는 적들을 흥기하의 깊은 골안에서 최종적으로 격멸소망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승전을 올릴것을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 흥기하를 짜기를 백부대점으로 정하신것은 적들이 기지로 돌아가지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리라는것을 타산하시였기때문이었다. 당시 일제는 항일유격대의 유인백부대전에 걸려 너무도 혼란이 났기때문에 유격대가 백부대에 있을만한 곳으로는 필사적으로 다치지 않았으며 이 전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유격대가 다시는 백부대전법을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는 점을 타산하시였다. 말하자면 적들이 더는 쓰지 않을것이라고 단정하는 전법을 다시금 적용할 계획을 세우시였다. 적의 심리를 환히 꿰뚫어보신 참으로 신묘한 구상이였다.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각 부대들은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고지로 올라오는 발자국만을 매우면서 지정된 장소에 매복하고 유인대는 발자국을 크게 내면서 계속 팔짜기로 빠져나갔다. 마침내 적들의 앞대오가 백부대전에 깊숙이 들어섰다. 마에다는 검음을 멈추고 눈우에 짙은 발자국과 팔짜기를 다시금 적용할 계획을 세우시였다. 적의 심리를 환히 꿰뚫어보신 참으로 신묘한 구상이였다.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각 부대들은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고지로 올라오는 발자국만을 매우면서 지정된 장소에 매복하고 유인대는 발자국을 크게 내면서 계속 팔짜기로 빠져나갔다. 마침내 적들의 앞대오가 백부대전에 깊숙이 들어섰다. 마에다는 검음을 멈추고 눈우에 짙은 발자국과 팔짜기를 다시금 적용할 계획을 세우시였다. 적의 심리를 환히 꿰뚫어보신 참으로 신묘한 구상이였다.

드디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신호총성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맹렬한 집중사격으로 원수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적들은 첫 타격에 벌레 반수이상을 잃었다. 팔짜기좌우에서 불의에 형격을 받은 마에다는 즉시 전대오를 행하고 기묘한 백부대전법에 의해 《트벌의 왕자》, 《트벌의 백전로장》이라고 반항하려 하였으나 함정에 빠져 두들겨맞는 승냥이마냥 발악할 사이도 없이 이 자리에서 폭죽 쓰러졌다.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불패의 전투대로 사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필적의 기개와 더불어 빛나는 수령결사옹위의 불멸의 화복을 우리 다시금 승업한 격정속에 그려본다.

항일의 너정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적전안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적의 한무리가 사령부가 자리잡은 통진에 나타났음을 발견하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적들을 맞이하여 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사령부와 다른 방향의 통진으로 적들을 끌고 달리지 않았다. 적들은 곧 그쪽으로 달려들었다. 모진 눈보라강추위속에서 단신으로 큰 무리의 적들과 싸우다가는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내건 결사전이었다. 죽자구만 죽자구만 이적의 발자취를 주저없이 달리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원수들을 물어내 놓으시였다. 백두산대장군의 심장은 오직 하나 백두산 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몸 생애가 되고 방패가 되리라는 신념으로 고고치고 있었다.

이윽고 사격에 적당한 장소를 택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한 자세로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마치 막 한눈까지 소멸하시였다. 사령부뒤 통진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은 유격대원들이 뒤늦게야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안심들하세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합니다.》라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오늘날도 조선혁명박물관에는 김정숙동지께서 배낭우에 걸머지셨던 그날의 양복을 받은 마에다는 즉시 전대오를 행하고 기묘한 백부대전법에 의해 《트벌의 왕자》, 《트벌의 백전로장》이라고 반항하려 하였으나 함정에 빠져 두들겨맞는 승냥이마냥 발악할 사이도 없이 이 자리에서 폭죽 쓰러졌다.

흥기대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결국 이 전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하고 기묘한 백부대전법에 의해 《트벌의 왕자》, 《트벌의 백전로장》이라고 반항하려 하였으나 함정에 빠져 두들겨맞는 승냥이마냥 발악할 사이도 없이 이 자리에서 폭죽 쓰러졌다.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불패의 전투대로 사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필적의 기개와 더불어 빛나는 수령결사옹위의 불멸의 화복을 우리 다시금 승업한 격정속에 그려본다.

항일의 너정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적전안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적의 한무리가 사령부가 자리잡은 통진에 나타났음을 발견하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적들을 맞이하여 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사령부와 다른 방향의 통진으로 적들을 끌고 달리지 않았다. 적들은 곧 그쪽으로 달려들었다. 모진 눈보라강추위속에서 단신으로 큰 무리의 적들과 싸우다가는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내건 결사전이었다. 죽자구만 죽자구만 이적의 발자취를 주저없이 달리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원수들을 물어내 놓으시였다. 백두산대장군의 심장은 오직 하나 백두산 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몸 생애가 되고 방패가 되리라는 신념으로 고고치고 있었다.

이윽고 사격에 적당한 장소를 택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한 자세로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마치 막 한눈까지 소멸하시였다. 사령부뒤 통진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은 유격대원들이 뒤늦게야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미소어린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노조에트벌대》와의 대결을 어느 한 지역 군사령관과의 대결로 보아서는 안된다. 《노조에트벌대》와의 대결은 곧 일본군부와의 대결이었고 《대일본제국》과의 대결이었다. 결국 이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패배가 더불어 강도 일제의 백만대군을 력사의 시군창에 처하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높이 떨쳐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의 화같은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우리 가슴 새차게 높인다.

흥기하의 총성에 어린 백전백승의 진리는 오늘날도 선군혁명총진군대오에 힘있게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장군님 계시어 머지않아 이 땅에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밝아올다!

오늘 이 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빛나는 산악이 되고 창조와 투쟁의 불길이 되어 위대한 정신력을 낳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하는 가장 격동적인 삶의 구호로 울리고있다. 원수들의 명줄을 거머쥘수 있고 편편편을 떨치시며 내 조국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눈부신 비약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무수한 전투에서 당한 비참한 패배를 놓고 《어떻게 된 노릇인가. 로벌에 있어서

는 천군만마의 오랜 강자인 마에다대장, 이러한 슬화에 빠져본적이 없는 트벌의 왕자인 마에다대장이 뜻하지 않게도 이러한 궁지에 빠져들어간대하여 이르러저한 비판의 여지가 없으리라 믿는것이나 이것은 오히려 오히려 커다란 작금이라 할수밖에 다른 말을 찾아낼수가 없다. ...》

참으로 흥기대전투의 승리는 대명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한 자세로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마치 막 한눈까지 소멸하시였다. 사령부뒤 통진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은 유격대원들이 뒤늦게야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미소어린

대를 이어 누리는 장군부, 위인복이 있어 내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존엄떨칠것이며 흥기하의 총성은 선군의 기개드높은 내 나라의 푸른 혁명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장쾌한 피성이였다.

본사기자 김성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추억속에 영생하는 전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높은 것인가.

철세위인의 승고한 동지적 사랑속에 죽어서도 빛나는 삶을 누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의 대결로 보아서는 안된다. 《노조에트벌대》와의 대결은 곧 일본군부와의 대결이었고 《대일본제국》과의 대결이었다. 결국 이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패배가 더불어 강도 일제의 백만대군을 력사의 시군창에 처하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높이 떨쳐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의 화같은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우리 가슴 새차게 높인다.

흥기하의 총성에 어린 백전백승의 진리는 오늘날도 선군혁명총진군대오에 힘있게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장군님 계시어 머지않아 이 땅에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밝아올다!

오늘 이 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빛나는 산악이 되고 창조와 투쟁의 불길이 되어 위대한 정신력을 낳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하는 가장 격동적인 삶의 구호로 울리고있다. 원수들의 명줄을 거머쥘수 있고 편편편을 떨치시며 내 조국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눈부신 비약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무수한 전투에서 당한 비참한 패배를 놓고 《어떻게 된 노릇인가. 로벌에 있어서

는 천군만마의 오랜 강자인 마에다대장, 이러한 슬화에 빠져본적이 없는 트벌의 왕자인 마에다대장이 뜻하지 않게도 이러한 궁지에 빠져들어간대하여 이르러저한 비판의 여지가 없으리라 믿는것이나 이것은 오히려 오히려 커다란 작금이라 할수밖에 다른 말을 찾아낼수가 없다. ...》

참으로 흥기대전투의 승리는 대명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한 자세로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마치 막 한눈까지 소멸하시였다. 사령부뒤 통진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은 유격대원들이 뒤늦게야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미소어린

대를 이어 누리는 장군부, 위인복이 있어 내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존엄떨칠것이며 흥기하의 총성은 선군의 기개드높은 내 나라의 푸른 혁명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장쾌한 피성이였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평범한 영화문학작가였다. 그런데 창작도중 그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과 관련한 비보를 받은 이경애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그의 장례식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가족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후 고인의 미완성이고 작품인 영화문학은 영화로 완성되었고 지방에서 살던 그의 가족들은 평양에 올라와 행복의 보금자리를 폈다.

사람들의 마음속상처도 꽃피는 생활과 더불어 점차 가셔지고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새있는 영화문학작가들은 예술적합을 더욱더 금치 못하신분은 우리 장군님 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국가수훈대신문건을 보게 되시였다.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수훈대상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일별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 작가의 이름이 명단에 없었던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시며 그 작가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1년전에 사망한 그 작가의 이름이 아버지께 대신하여 국가수훈 제1급을 수여받는 극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황명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그리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아래 네 그리스공화국 대통령 카를로스 빠블리아스각하 나는 그리스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체99 (2010)년 3월 17일



##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연안군 도남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도처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가지고 위대성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들에 뜨겁게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로동농신문 박창규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 백두의 넓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신앙군장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억센 신념이다. 이 뜻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항일혁명정신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을 본받아 지난 3월초까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짙은 거름을 전부 포전에 넣으며 새 알뿌리들의 돌과귀를 열어 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높은 혁명정신과 그들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정력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 배우고 계승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혁명적학습기풍은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전투장투마다에서 도 새차게 차려지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뜨겁게 느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을 구현하도록 하고있으며 항일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 형명적량만과 열정에 넘쳐

은천군 마두협동농장에서 백두밀립에 내세워진 혁명적량만주의 정신은 지금 새로운 혁명적량만주의 정신이 새차게 떠오르는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열매는 은천군 마두협동농장을 찾았던 우리는 혁명적량만과 열정에 넘쳐난 마두협동농장 농장원들을 다그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기풍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을 구현하도록 하고있으며 항일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 투사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의 일치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안에 기술학습의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러마다에서는 학습기풍이 차려졌다. 공장의 열기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당구우일명에서의 군정 학습분위기를 방불케 하였다. 로동자들은 공장구내를 오가면서 항일의 나날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한 투사들처럼 손에 책을 놓지 않았으며 작업의 휴식시간에도 항일유격대학습 방법으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은천군 마두협동농장에서

은천군 마두협동농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로동농신문 박창규

## 형명적량만과 열정에 넘쳐

은천군 마두협동농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로동농신문 박창규



# 종 소 리

작사 집 체  
작곡 안정호

정서적으로 (♩ = 75)

1. 하 양 - 계 내 리 는 눈 발 속 - 으 로 - 종 소 - 리 울 리 어 - 오 네 — 그  
리 - 운 장 군 님 계 신 곳 - 으 로 - 이 마 - 음 신 교 흐 - 르 네  
우 리 의 행 복 을 꽃 피 - 워 또 한 해 헤 쳐 오 신 위 대 한 사 랑 의 그 길 - 을 가 수 에 새겨 주 네  
아 - 종 - 소 리 추 - 억 의 종 - 소 리 — 정  
답 - 계 을 - 리 네

2. 웃음꽃 피어난 창가마다에 종소리 울리어오네  
어버이장군님 인민을 위해 바치신 로고 전하네  
설날의 눈길을 떠나서 이밤의 눈길이어  
걸으신 천만리 자욱에 한해가 실렸어라  
아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뜨겁게 울리네
3. 이 땅에 찾아온 설날 알리며 종소리 울리어오네  
위대한 장군님 따라서 온 길 끝까지 우리 가리라  
동무여 새해도 말은 일 더 잘할 맹세안고  
우리의 장군님 위하여 축배를 높이 들자  
아 종소리 희망의 종소리 힘차게 울리네

# 맹세는 실천으로 빛난다

## 2. 8비남론련합기업소 김혁청년돌격대원들

2. 8비남론련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남기고 격정과 환희로 새차게 뚫어낸 지 2년 2월이었다.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는 김혁청년돌격대원들도 있었다.

가슴을 들먹이는 돌격대원들의 눈앞에 굳이 눈고 보랏빛이 들 수 없는 나날들이 감회깊이 안겨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완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월초 기업소주내의 한곳에는 수백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다. 한겨울의 땀뻘 추위가 가슴을 부러뜨리지만 청년들의 가슴은 불타고 있는 듯 달아올랐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붉은기름에 새겨진 <김혁청년돌격대> 라는 글자가 청춘들의 피끓는 심장을 더 한층 높여주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는 길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각 직장의 청년들로 무인한 기업소의 김혁청년돌격대는 이렇게 첫 걸음을 떼었다.

맹세를 실천하는 길은 결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그만큼 청년돌격대원들이 해야 할 공과제는 아홉치고 밤대할 것이었다. 낮은 설비들을 들어내는 작업, 건물기초조각기, 다시 기초조각기... 하나하나가 다 엄혹한 자연과의 격렬한 전투를 동반하는 것이었고 고통을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 또한 이들이 붉은기름에서 다진 신념의 맹세를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검증하는 척도였다.

기초조각기트럭까지 전후 한창 벌어진 때였다. 수십근대의 기초조각기트럭을 파내려가면서 가내면 작업현장에 어느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은 점점 늘어났다. 이때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힘찬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우리가 다진 맹세는 빈 말이 아닙니다. 청춘의 피끓는 가슴으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됩시다.》

돌격대장 오형현동무가 이렇게 웨치며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다. 여러 대장건설에 참가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남뉘어 어깨를 들이밀면서 돌격대를 열어제끼던 나날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닌 그였다. 그의 뒤를 중대장인 한도성, 강명철, 리준석동무들이 따라섰으며 연이어 대원들이 뛰어들었다.

돌격대원들은 찬기운이 벅속까지 스며드는 허리치는 물속에서 물을 퍼내는 한편 함마와 정대로 기초조각기트럭을 꺼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맡은 대공사에서 기초조각기트럭까지 한 공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 대공사사의 모든 공정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헌신성과 건실발달성, 완강성을 어찌 다 말할 수 있랴.

건물기둥을 세울 때 10여m의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땅에 내려와 편안히 쉬어야 할 때는 그 지위를 맡은 리준석동무가 물속에서 일하며 두 시간까지 귀해 주먹발을 울려보내달라고 종이쪽지를 써내려보낸 중대장 리준석동무는 비롯한 3중대 대원들.

그리고 기초조각기트럭기둥에 자갈이 모자라자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재물을 생산할 만년대의 창조주인데 어떻게 아무 자갈이나 쓰겠는가 하면서 수십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규격이 맞는 자갈들을 한알한알 고른 청년돌격대원들... 육중한 질소분리기함을 조립할 때였다. 높이가 10여m나 되는 부피가 큰 람을 세우자니 당장 그런 능력의 기공기와 여태의 권양을 올려보내달라고 종이쪽지를 써내려보낸 중대장 리준석동무는 비롯한 3중대 대원들.

그리고 리성철동무가 한대의 트랙터와 트랙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착상을 내놓았다. 머리를 긁적거리며 해낼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일부 돌격대원들에게 오형현동무가 신념을 넘쳐 말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기업소의 현대화 공정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격대원들은 그 말속에서 천만근의 무게를 느꼈다. 이어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돌격대원들은 자신만만하게 권양피바줄로 탐머리를 묶었다. 신호기발이 흔들리고 트랙터가 용을 끄려는 순간 《가만!》 하는 소리가 울렸다. 신호수도 트랙터운전수도 그리고 그 지리에 있던 돌격대원들 모두가 놀라서 소리나음을 보았다. 돌격대의 《고문어바이》라고 불리는 공훈건설자인 리성철동무가 땀이 맺힌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탐머리에 맨 권양피줄을 다시 풀었다. 즉시 쇠바줄을 바꿨지만 풀리지 않았는가 해서 기웃이 넘겨다보던 돌격대원들은 리성철동무가 묶어댈 자리에서 마음을 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쇠바줄이 람을 가마니로 감싸지 않은 부분에 약간 벗겨져 나왔던 것이다. 리성철동무와 돌격대원들은 다시 쇠바줄을 정후 복구하여 들어올렸다. 가정소다생산공정, 압모니아생산공정, 열산성생산공정... 청년돌격대원들이 일떠세운 하나 하나의 창조물에는 그들의 이렇듯 뜨거운 열정과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이 비껴있었다.

참으로 김혁청년돌격대가 걸어온 지난 10년은 결사판전의 정신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붉은 기발앞에서 다진 신념의 맹세를 지켜온 긍지로운 나날이었다. 그 나날 여러명의 돌격대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나 쓰셨는가 하면서 수십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규격이 맞는 자갈들을 한알한알 고른 청년돌격대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다.

지난 2월 또다시 기업소를 찾아 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모습을 우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똑같은 맹세로 활화산같이 타버렸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양심과 의리로 어머니조국의 부강민영을 위한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기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본사기자 김진욱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자와르 씨르 카르 문화성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대단정원들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차용명과 함께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온 류룡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목위성 참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 인민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추녀는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다. 그들의 일가분들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만경대고향집의 사적물들이 소중히 보존되어있음을 보고 김일성주석에 대한 조선인민의 끝없는 경모심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대표단은 이날 주체사상탑과 평양문화전시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자와르 씨르카르 문화성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이 2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조선로동당 대표를 총비서가 만났다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가 19일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조선로동당 대표인 김동태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르메리이즈 벨라렘총비서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총비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심기를 축원하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그에게 전하여드렸을 것을 대사에게 부락하였다.

살충능력이 매우 높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새로운 생물농약이 개발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는 나라의 생물공학과 유기농업발전에서 일대 혁신으로 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애국독립의식을 높여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애국독립의식을 높여야 한다.

본사기자

# 조선과 인민아공화국 사이의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아공화국 정부사이의 2010-2012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24일 인민문화전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자와르 씨르카르 문화

은산군 순화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올해 영농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려나가고 있다. 그 앞장에는 리안의 로기당원들이 서있다. 로기당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대전에서 자기본분을 다할 각오를 안고 산기습과 강주변의 빈방들을 찾아가며 지극히 절구기 위한 일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본사기자

# 두번째로 발아안은 광명

광명구역 관동 2동에 사는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

여 논지료를 받은 나날은 불과 30여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날에 서해선로인 선근지대 보전일군들의 뜨거운 인정을 따라가며 가슴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으며 우리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삶의 요람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때도 꽃나서치던 그에게 광명을 준것은 부모나 혈육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한가롭게 있고 정을 누리는 동지들이었고 어머니당의 따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품속이 식을제라 새벽길을 달려오던 당대사가 김혁청년동무가 어느때나 많았이 그의 《지행이》가 되어주던 리명명동무, 잠든 그의 머리맡에 성의껏 만든 벌시꽃과 영양식료품들을 달없이 놓고 가던 이름을 다 알수 없는 의로일군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 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서해선로인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의 후파로 수십년만에 또다시 실명을 당하고 수도의 한 중앙병원에 입원하

어들이 가져지는 순간 불시에 눈이 부셨다. 보일듯말듯, 알릴듯말듯 희미하던것이 점점 선명하게 안겨왔다. 떨리는 두손을 눈가에 가져가는 환자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

가슴을 조이며 봉대를 풀던 당대사가 김혁청년동무도, 수술집도자인 김성근동무도, 담당간호원 분에게, 신은주동무를 비롯한 모든 의로일군들이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그들속에 묻혀 격정으로 가슴들먹이는 75살의 환자는 전쟁로병인 서해선로인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 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서해선로인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의 후파로 수십년만에 또다시 실명을 당하고 수도의 한 중앙병원에 입원하

은 미생물을 농업생산활동에 널리 리용하기 위한 높은 목표 밑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율높은 생물농약에 대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애국의 열정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이들은 고집이런 탐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항생소제형의 첨단생물농약인 아베르메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이 첨단기술로 완성한 새 농약은 농업과 축산, 원림 및 산림부문을 비롯하여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강력한 살충, 살진드기활성을 가지고있어 효력지속기간이 오랜뿐 아니라 저항성이 높으며 구제하기 힘든것으로 알려졌다는 수시중의 병해충들을 거의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

우성의 전혀 없는 생물농약은 알곡, 과일, 남새 등 모든 농작물과 인체 그리고 토지를 비롯한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극히 적은 량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성이 대단히 높다.

우성의 전혀 없는 생물농약은 알곡, 과일, 남새 등 모든 농작물과 인체 그리고 토지를 비롯한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극히 적은 량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성이 대단히 높다.

아베르메린으로 만든 구충가루약, 회충알약, 주사약 등의 제품들은 수의식산부문에 매우 높은 기생충구제효과를 나타내고있으며 보건부문에서도 여러가지 약제로 널리 쓰인다.

아베르메린생산세수로 오수정화용복합미생물을 생산하는 기술도 완성되게 됨으로써 오수를 판계용수로 리용하고 도시의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는 넓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 식의 새롭고 독특한 발효기술로 만든 아베르메린 사리원시 미곡현동농장, 제령군 삼지강현동농장, 고산과수농장, 황해남도 계남목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있다.

세계적으로 살충력이 센 많은 화학농약들이 사용되고있지만 농작물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과 공해로 하여 생물농약이 추세로 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첨단생물농약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도약함으로써 농업부문에 화학농약을 대신하면서도 최대의 살충효과를 내며 농산물의 질과 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생물농약의 개발은 과학기술로 나라의 농업과 인민의 생활을 발전향상시켜주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 생물공학과 유기농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첨단생물농약 연구개발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과학자들이 나날의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새로운 무공해광복성생물농약을 개발하였다.

모든 부문에서 첨단기술을 돌파할 때 대한 당의 호소심정으로 발아안은 애국복합미생물센터의 과학자들은 21세기의 생물농약으로 주목받고있는 아베르메린을 첨단기술로 연구완성하고 생산기술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살충능력이 매우 높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새로운 생물농약이 개발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는 나라의 생물공학과 유기농업발전에서 일대 혁신으로 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애국독립의식을 높여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애국독립의식을 높여야 한다.

본사기자

# 두번째로 발아안은 광명

광명구역 관동 2동에 사는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

은 요란한 탁수소리에 깜짝 놀랐다.

《로명동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파로일군들의 진정이 깃든 생일상상에 선 그의 두볼로는 뜨거우게 흘러내렸다.》

친혈육처럼 여겨지는 의로일군들의 그 모습에 비껴어 수년 세월을 한식술로 산 랑방구역당 위원회, 랑방구역인민보안서, 랑방구역인민병원의 일군들과 미처 이렇듯 다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마음에 목이 딱 메어 그는 말하였다.

《다시 뜻을 들으셨던 소원이 풀렸습시다. 두번다시 찾은 광명을 안고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언덕이 곳곳마다 솟아있는 인민의 세상,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화폭에 담는다는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본사기자 조향선

#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신창현터전광 설보보수직장 작업반장 김명석동무는 많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라의 석탄생산을 늘이는 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다.

탄광의 석탄생산에서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그는 수시로 제기되는 설비들의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늘 사색하고 탐구하며 기술수준을 무한히 높이고있다.

얼마전 거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작업기의 수리공 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한 그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항의고안을 하여 여러 가지 설비들의 수리를 탄광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게 한 결과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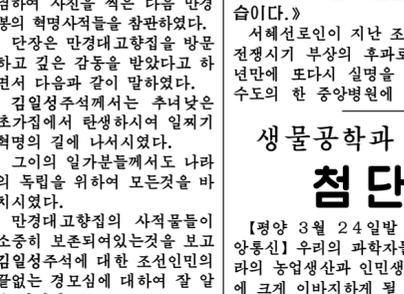
로동동지 유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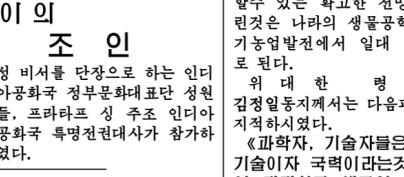
인민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조선과 인민아공화국 사이의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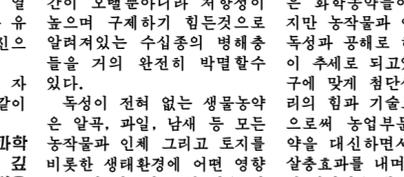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조선로동당 대표를 총비서가 만났다



생물공학과 유기농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첨단생물농약 연구개발



두번째로 발아안은 광명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